

- 1-1. 서론
- 1-2. 환유는 무엇일까?
 - 2-1. 본론 1: 한국어와 영어에 있는 일상적인 환유 표현
 - 2-2. 본론 2: 예술 작품에서 등장하는 환유 표현
 - 2-3. 본론 3: 성경에서의 환유 표현
 - 2-4. 본론 4: 비언어적 환유 표현
- 3. 결론

1-1. 서론

초등학교 4학년 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동물 이름으로 많이 불렀었다. 나는 그 당시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다. 반 아이들이 나를 ‘나무늘보’라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게으르고 약한 동물을 내가 닮았다니.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나는 나무늘보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그냥 얼굴이 조금 닮았을 뿐이었다. 통통한 아이들은 돼지였고, 다리가 가는 친구들은 학이었으며, 키 큰 아이들은 기린이었다. 아이들은 단순히 한가지 특징을 동물과 대응시켜 특정 동물로 치환시킨 것이었다. 이런 환유의 사용은 비단 초등학교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우리가 즐기는 많은 문화의 영역에서 환유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창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 언제나 있었다. 우리 삶의 많은 행복과 슬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상태의 영역에서 환유는 존재해왔다. 이 글에서 나는 환유가 무엇인지, 환유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왜 환유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1-2. 환유는 무엇인가?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라는 문장을 생각해보자. 여기서 “The ham sandwich”라는 표현은 진짜 샌드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이 환유의 경우이다.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자. “He likes to read the Marquis de sade”, “He’s in dance.” 이 문장들에서 “Marquis de sade”는 “사드의 책들”을 의미하고, “dance”는 “춤 추는 일”을 의미하게 된다. “사람이 쓴 책”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춤추는 일”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환유의 대표적인 경우인 “The part for the whole”의 경우이다.

은유와 환유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과정인데, 은유는 원칙적으로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유의 중요한 기능은 이해이다. 하지만 환유는 1차적으로 지시의 기능을 갖는다. 즉 환유는 한 개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개체를 대신한다. 물론 환유 역시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환유는 은유가 충족시키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일부를 다소는 동일한 방식으로 충족시킨다. 하지만 환유는 우리에게 지시되고 있는 것의 어떤 측면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환유는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며 평범한 일상적인 방식의 일부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진을 보여줄 때,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환유의 예시이다. ‘얼굴이 사람을 대신함’과 같은 환유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환유의 개념 역시 은유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데, 다음 7가지 실례들을 보도록 하자.

1. *The part for the whole(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 ex) Get your butt over there!*
2. *Producer for product(생산자로 생산품을 대신함) ex) I hate to read Hidegger.*
3. *Object used for user(물건으로 사용자를 대신함) ex) The sax has the flu today.*
4. *Controller for Controlled(통제자로 피통제자를 대신함) ex) Nixon bombed Hanoi.*
5. *Institution for the people responsible(기관으로 책임자를 대신함) ex) Exon has raised its price again.*
6. *The place for the institution.(장소로 기관을 대신함) ex) Wall street is in panic.*
7. *The place for the event(장소로 사건을 대신함) ex) Remember the Alamo.*

이 예시들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조직하는 관점이 되는 어떤 일반적인 환유적 개념의 실례들이다. 환유적 개념은 우리의 경험 속에 토대를 두고 있다. 상징적 환유는 일상 생활과 종교, 문화를 특징짓는 일관성있는 은유 체계들 사이의 결정적인 연결 장치이며 종교적 개념과 문화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다.¹⁾

2-1. 본론 1: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환유 표현

환유 표현은 당연하게도 우리 일상에서의 언어표현 속에 잠재되어있다. 우리나라와 세상의 많은 말들 속에는 그들의 영역에서 납득될 만한, 자의적이지 않은 환유 표현이 숨겨져 있다. 이번 장에는 그것들을 찾아보고 설명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환유 표현

-일손이 부족하다. ex) “전남소방, 농가 방문 ‘일손돕기’ 나서”,²⁾

여기서 ‘일손’이라 함은 ‘일하는 손’을 의미한다. ³⁾ 따라서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손’이라는 몸의 부분으로 몸 전체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The part for the whole(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의 예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총선 앞두고 여의도에 분 알바니아 바람? 다 틀렸다.⁴⁾

이 기사는 총선을 앞두고 알바니아 국회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이다. 이 기사의 제목에는 두 번의 환유가 동시에 쓰였다. 첫 번째는 ‘여의도’이다. 여의도는 서울에 있는 지명이며 국회와 kbs가 있는 곳이다. 정치에 관한 뉴스에서 ‘여의도’를 언급할 때는 보통 ‘국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The place for the institution.(장소로 기관을 대신함)의 예로 볼 수 있다. 여의도라는 지명만으로 국회를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알바니아 바람’이다. <유통가에 코로나 19극복 ‘덕분에 챌린지’ 바람>⁵⁾같은 기사 제

1) G. 레이코프 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pp.62-69

2) 윤자민, <전남소방, 농가 방문 ‘일손돕기’ 나서>, 아시아 경제, 2020

3) [표준국어대사전]

4) 김찬휘, <총선 앞두고 여의도에 분 알바니아 바람? 다 틀렸다.>, 오마이뉴스, 2020

5) 이진, <유통가에 코로나 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바람>, itchosun, 2020

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흔히 무언가 유행하거나 ‘무슨 일에 더불어 일어나는 기세’⁶⁾를 ‘바람’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결국 ‘알바니아 바람’이라는 것은 이 기사에서 ‘알바니아 국회의 운영방식을 한국 국회에 가져오려는 움직임’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알바니아’를 통해 ‘알바니아 국회’를 표현하였다. 이 역시 The place for the institution(장소로 기관을 대신함)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환유 표현인 것이다.

-문재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⁷⁾

‘광화문’이라는 장소는 수많은 상징으로 얽힌 대표적인 장소이다. ‘광화문’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환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 기사가 쓰여졌던 2017년 경 광화문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 등의 상징으로서 광화문이 많이 사용되었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은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었다. 따라서 문재인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발언인 것이다. ‘광화문 대통령’이란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이 되고, ‘광화문’은 ‘새로운 시대’로서 환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어에서의 환유 표현

-you're the boss.

ex) I think you can better than this.....Oh, never mind, you're the boss.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아, 신경쓰지마. 네 맘대로 해.)

“You're the boss”는 직역하면 “당신이 보스다”가 되겠지만 “당신 맘대로 해라, 당신을 따르겠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⁸⁾ 보스의 특성 중 하나인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boss’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The part for the whole(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의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2. 본론 2: 시, 영화 등 예술 작품에서의 환유

-시에서의 환유: 백석, <모닥불>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형겔조각도 만
개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중략)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동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⁹⁾

위의 인용한 부분은 백석의 <모닥불>의 1연과 3연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는 The part for

6) [표준국어대사전]

7) 김수연, <문재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매일경제, 2017

8) Urban Dictionary, <https://www.urbandictionary.com/author.php?author=btarunr>

9)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Human and books, 2011, pp. 23

the whole(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의 원리가 나타난다. 새끼오리, 헌신짝, 소똥. 모닥불안에는 유래도 알 수 없고, 그들 사이의 공통점도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데 모여 타고 있다. 1연만 보아서도 그것들의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3연에서는 모닥불의 정체가 서술적으로 설명된다. 모닥불에는 슬픈 역사가 있다. 그리고 1연에서 제시된 모닥불 안에서 타오르는 모든 것들은 슬픈 역사의 한 부분이 되며 동시에 슬픈 역사를 환유적으로 표현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¹⁰⁾

-드라마에서의 환유: You(너의 모든 것)

*But not us. We had a date with destiny. I'm reading too much Chandler.*¹¹⁾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운명의 데이트를 해야 하니까. 챌들러 책을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위의 대사와 아래의 해석은 해당 드라마의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가져온 것이다. 영어 자막에는 'Chandler'라고 쓰여있지만 한국어 자막에는 '챌들러 책'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대표적인 Producer for product(생산자로 생산품을 대신함)의 원리라 할 수 있는데 'Chandler'를 통해 '챌들러가 쓴 책'을 표현한 것이다. 미국인들이 원래 이렇게 환유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드라마에서의 미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환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다.

*You're not gonna want to pass this, from Dudley's.*¹²⁾

(더들리네 아보카도 토스트라면 마다하지 못할걸요?)

역시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동시에 가져온 것이다. 'Dudley's'라는 것에 '더들리네 아보카도 토스트'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 위의 예와 같이 Producer for product(생산자로 생산품을 대신함)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래에서의 환유: Buttercup

'Buttercup'이라는 것은 '미나리아재비'라는 작은 컵 모양의 노란색 꽃이 피는 야생 식물을 일컫는 말이다.¹³⁾ 노래에서 이 'buttercup'을 노래에서 환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를 가져와 봤다.

So build me up buttercup, don't break my heart.-<Build me up Buttercup>, The Foundation

(그러니 내 사랑,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줘.)

Oh man, you cut me to size. My little buttercup.- <Buttercup>, Jack Stauber

(세상에, 나랑 사이즈가 딱 맞잖아, 내 조그만 사랑.)

번역이 확실히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나 가사의 문맥을 보았을 때, 'buttercup'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말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buttercup'꽃은 굉장히 작고 예쁜 것이 특징인데, 이 특징을 살려 사랑하는 사람들

10) 김봉근, <백석 시에서 환유적 표현의 의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9, pp.50

11) [You(너의 모든 것)], 넷플릭스, 시즌2 6화

12) [You(너의 모든 것)], 넷플릭스, 시즌1 10화

13) 옥스퍼드 영한사전

'buttercup'으로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서론에서 설명한 7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buttercup'이라는 전체를 통해 'buttercup의 귀여운 부분을 표현한 것이니 전체로 부분을 대신하는 것이 되는 걸까?

-2.3 본론: 성경에서의 환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경에도 이러한 환유 표현이 있다. 다음 두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요한복음 15:13]

이 구절은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로 '포도나무'는 예수 자신을 말하고 '가지'는 '제자들'을 말한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자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사실 이 뒤에는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는 가지와 나무의 종속 관계를 통해 자신과 제자들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마테오 복음 10:34-42]

예수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다. <삶으로서의 은유>에도 적혀있듯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로 성령을 대신하는 환유를 하기도 한다.¹⁴⁾ 성경에서 예수는 실제로 사랑과 평화에 관한 말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유일하게 분노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다. 하느님을 버린다거나, 하느님의 말씀에 반하는 짓을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러한 분노를 '칼'이라는 것을 통해 환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칼'은 신성을 모독하는 모든 자들을 처단하라는 '전쟁'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앙에 방해되는 내적, 외적 요소를 모두 잘라버리는 '믿음'을 나타내기도 한다.¹⁵⁾ 그렇기에 '칼'은 '신앙을 지키는 도구'로서 예수가 선택한 환유적인 표현인 것이다.

2.4 본론: 비언어적 환유

-17초의 침묵

차일디쉬 감비노의 노래 <This is America>는 해당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6.8억명이 넘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뮤직비디오 안에 수많은 상징과 은유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의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온다. 춤을 추던 감비노가 갑자기 총을 겨누는 자세를 하더니 노래가 멈추게 된다. 총을 겨누는 자세로 한참으로 가만히 있던 감비노는 곧 이어 담배를 꺼내 피운다. 이 적막과 행동은 17초 동안이나 이어졌다.¹⁶⁾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지배적인 해석은 존재한다. 바로 2018년에 있었던 더글라스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 17명을 추모하는 뜻이라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14) G. 레이코프 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pp.68-69

15) 최재석,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당당뉴스, 2014

16) <https://youtu.be/VY0jWnS4cMY>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 규모가 큰 총기사건이다.¹⁷⁾ 이 해석이 완전히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비언어적 환유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초간의 침묵으로 17명의 희생을 표현했다는 것은 사람의 수를 초로 환유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을 비언어적 환유의 예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무릎 꿇기

최근 경찰의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가 기폭제가 되어 미국 전역에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시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위의 모습인데, 바로 ‘무릎 꿇기 시위’이다. 경찰이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8분 46초간 누르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무릎 꿇기’는 시위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최근 미 국회의사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하였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오타와 인종 차별 반대 시위에서 ‘무릎 꿇기’를 하였다.¹⁸⁾ 이 ‘무릎 꿇기’는 서론에서 설명한 비언어적인 환유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 인종 차별 반대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 죽음의 원인인 ‘무릎 진압’은 시위의 상징이 되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마음을 대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얼굴이 사람을 대신함’과 같은 환유 표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환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환유가 사용되는 많은 예시를 알아보았다. 세상의 수많은 영역에서 환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존재해왔고 우리의 생활, 예술, 종교, 심지어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그 빛을 내었다. 환유란 ‘시’에서나 쓰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모든 표현들은 결국 시적인 요소가 필요하고¹⁹⁾, 그 시적인 요소에 환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쓰이는 모든 표현에는 환유적 요소가 들어있고, 앞으로의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들의 장난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환유이다. 초등학교 때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나무늘보’일 만큼, 적어도 나에게 환유의 힘은 막강하다. 앞으로 우리 삶에 계속 함께할 환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분명 풍족하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아니 더 풍족하고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7) 송정렬, <미 플로리다주 고교서 퇴학생 총기난사로 17명 사망(종합)>, 머니투데이, 2018

18) 류지복, <의사당서 8분 46초 무릎꿇은 미 민주 의원들... “참을 수 없이 긴시간”, 연합뉴스, 2020

19) 이현정, <매체 언어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한 시창작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